

무의식적 인지와 커뮤니케이션*

— 인지기호학을 위한 고찰

김광현**

【 차 례 】

- I. 서론
- II. 무의식적 인지
- III. 몇 가지 실험
- IV. 무의식적 인지와 잠재-시니피에
- V. 무의식적 인지와 기호학: 몇 가지 인식론의 문제
- VI. 결론

국문초록

인간 뇌 활동의 직접적인 관찰에 기초한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는 심리학, 교육학, 언어학, 철학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마케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조심스럽게나마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인정되는 변화이기도 하다. 특히 미지의 세계이었던 무의식적 인지의 문제도 fMRI를 통해 그 윤곽이 잡히고 있다는 건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선 무의식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무의식이 우리의 의사결정, 취향, 업무 처리 및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실험을 소개함으로써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했다. 또한 간략하게나마 이런 실험들과 연구 결과들을 기호학은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해 보았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기호학이 너무 사회·규범성에 스스로를 가둠으로써 자극의 세계를 너무 등한시 한

* 이 연구는 2014년도 대구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임.

** 대구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것인 아닌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호의 발생론에 관한 중대한 문제도 그들에 가려 있었던 건 아닌지 묻게 되었다.

열쇠어 : 인지과학, 무의식적 인지, 커뮤니케이션, 인지적 자극, 기호학

I. 서론

이 글은 인지과학들 사이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한 무의식의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드의 기호학에 익숙한 우리에게 의식의 영역을 벗어나는 자극의 세계, 따라서 코드화되지 않은 정보들을 논한다는 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 우리의 일상 은 의도적이거나 의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부인 하긴 어렵다. 그중에는 운전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틀에 밝힌 동작도 있 겠지만 여기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서 인지하는 자극, 다시 말해 무 의식적 인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들이 인간의 행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와 인지과학의 연구들이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기 호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를 제 기해 보기로 한다.¹⁾

II. 무의식적 인지

뇌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인간의 정신은 그것의 입력과 출력만이 파악될 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나 작용

1) 무의식에 대한 관심은 이데올로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생겨났으며 그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집단이 이데올로기에 동화되는 과정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으며 그 결과 인간 사고의 다양한 연구들은 귀납법적 방법론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과 뇌파검사(EEG : Electro Encephalography)를 통한 뇌 활동의 직접적이고 실시간적인 영상 확보에 힘입은 인지과학의 최근 연구 성과는 실제로 인간이 받는 다양한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을 정확하게 관찰 및 파악하기에 이르렀고 그 중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들도 규명되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 성과에 힘입어 인지과학자들은, 뇌는 결코 활동을 멈추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인지 못 할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의식은 쉴 새 없이 활동한다는 말인데 이 개념은 프로이트(S. Freud)의 그것과 달리 <우리가 의식 못하는 것으로서, 달리 말하면 개인이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정보 처리 작용의 총체>로 정의된다.²⁾ 또는 <의식의 한계 밖에 있는 자극들로서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³⁾ 뉴로마케팅(Neuromarketing)의 전문가 하우젤(H-G. Häusel)에 따르면 우리의 결정 중 70~80%는 무의식적으로 내려진다.⁴⁾ 나머지 20~30%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집

2) 인지과학에서는 무의식이라는 용어보다는 비의식 non-conscience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그것이 프로이트와 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용어 <무의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데아엔(S. Dehaene)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무의식의 개념은 프로이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17세기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언급된다고 말한다. 한 예로 스피노자는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의식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이유는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19세기에는 반사 신경 연구와 계층적 신경체계 연구가 이어지면서 심리학자 폰 헬볼츠(von Helmholtz)는 <무의식적 추론 inferences inconscientes>을 규명했으며, 리보(T. Ribot)는 <무의식적 기억>을 언급한 바 있다. Collège de France, 「l'inconscient cognitif et la profondeur des opérations subliminales」, 2009년 강의, http://www.college-de-france.fr/media/stanislas-dehaene/UPL19994_dehaene_res0809.pdf. E. Suzanne, Implications philosophiques, <http://www.implications-philosophiques.org/>. <http://www.implications-philosophiques.org/ethique-et-politique/implications-axiologiques/psychanalyse-et-neuroscience/la-psychanalyse-face-aux-neurosciences-1/>

3) Jem E. Berkes : “Does “subliminal perception” (perception without awareness) occur, and how can it be measured?” 2004, University of Manitoba. http://www.berkes.ca/archive/berkes_subliminal_perception.pdf.

중하여 성찰할 때 인간의 뇌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다(이는 많은 양의 혈액 공급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뇌 활동은 절약 모드, 따라서 무의식적 모드로 행해진다는 것이다.⁵⁾ 물론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고 어떤 문제를 명백하게 인지하며 논리적으로 풀어보려는 노력(성찰(introspection))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가 의도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습득하는 행위는 의식적 노력을 전제로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의식의 범위를 벗어나 인지하는 것도 많으며 그렇게 축적된 정보는 분명 인지 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인지적 활동은 다시 무의식적 자극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인지과학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다.

Ⅲ. 몇 가지 실험

1. 무의식적 동기부여

동기부여에 따라서 대인관계나 업무의 효율 내지는 성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당연시되지만 무의식적인 동기 부여가 우리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일이다. 이를 위해 페시글로오네(M. Pessiglione) 연구팀은 매우 간단한 실험을 한 바 있는데 그 팀은 실험 대상자에게 근력이 강할수록 금전적 보상이 있다고 미리 알려 주고 한번은 1페니를, 다른 한번은 1파운드(1000배의 차이)를 <의식할 수 없게> 매우 짧게 보여준 다음,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에

4) 뉴로마케팅(Neuromarketing)은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뉴런(neuron)과 마케팅을 결합한 신조어로, 무의식적 반응과 같은 두뇌자극 활동을 분석하여 마케팅에 접목시키는 새로운 마케팅 부류이며 일부 나라에서는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품을 팔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다.

5) <http://ko.wikipedia.org/wiki/%EB%89%B4%EB%A1%9C%EB%A7%88%EC%BC%80%ED%8C%85>. Hans-Georg Häusel, psychologue dipl., membre du comité d'administration du groupe Nymphenburg Consult AG, Munich.

http://www.lendenmann.org/arbeitsproben/sana/otx/otx_83/L_O43_12_f_Umdasch.pdf.

연결된 집계를 얼마나 세게 잡는지를 관찰했다.⁶⁾ 그 결과 1파운드를 오래 보여줄수록(100ms과 17ms차이) 집계를 쥐는 근력이 강해졌고 1페니를 오래 보여줄수록 근력이 약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지각한 보상의 자극에 따라 실험 대상의 노력이 달라진 것이다. 이 실험은 이런 저런 업무의 성과 차이가 때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무의식적 동기부여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은 무의식적 차원의 동기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 업무 성과를 관련짓지 못할 수도 있다(이 때문에 개인의 컨디션이나 그날의 운세를 탓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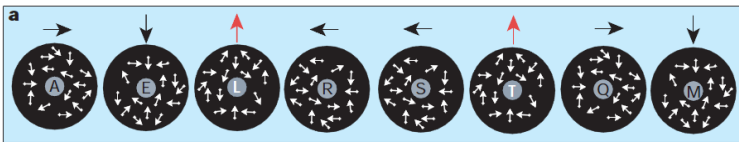
무의식적 인지를 입증하는 또 다른 실험으로는 맹시(blindsight) 실험(Marshall & Halligan, *Nature*, 1988)이 있다. 이 실험에서는 지각 범위 중 왼쪽을 인식 못하는 <편측 공간 무시 증세>의 실험대상에게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보여준다. 실험 대상에게 그림의 두 집 중 차이를 물으면 그는 <없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어떤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지를 물으면 윗쪽 집이라고 답하는데 17명 중 14명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⁷⁾ 이런 경우 실험 대상이 보지 못한 것을 그의 뇌가 인지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실험은 우리의 선호도가 의식적 판단을 넘어서는 뇌의 무의식적인 (또는 의식과는 독립적인) 판단임을 보여주는데 다양한 윤리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뉴로마케팅은 뇌의 이런 판단을 미리 파악하여 제품에 반영하려 한다.

6) Pessiglione, M., Schmidt, L., Draganski, B., Kalisch, R., Lau, H., Dolan, R. J., et al. (2007). "How the brain translates money into force: a neuroimaging study of subliminal motivation", *Science*, 316 (5826), 904~906.

7) Berthet, V., Laboratoire de Psychologie de l'Interaction et des Relations Intersubjectives (InterPsy - EA4432) 세미나 - 27/11/2012, Université de Lorraine.
http://vincentberthet.com/wp-content/uploads/2013/02/L%E2%80%99inconscient-cognitif_27_11_2012.pdf. 여기서 그는 Marshall & Halligan(*Nature*, 1988)의 실험을 인용한다.

2. 무의식적 습득

무의식적 자극이 인지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무심코 들은 곡조를 자신도 모르게 외울 수 있지만 무의식적 습득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은 와타나베(T. Watanabe)와 그 연구팀의 실험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다. 와타나베 연구팀의 실험은 수많은 점들이 제각기 비스듬히 움직이는데 그 중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들을 더 빈도 높게 제시한다. 이때 5%의 점들만이 균일하게 움직인다. 이 점들을 지속적으로 수백 번 보여주어도 실험 참여자는 그 규칙성을 알아채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실험 참가자는 오로지 의도된 방향에 대해서만 규칙성과 범주화를 식별하기 시작했다.⁸⁾ 세이츠(A. R. Seitz)와 와타나베는 이 실험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점들의 움직임 방향이 특정 타깃(여기서는 흰색 활자)과 짝을 이루게 하고, 동일한 빈도의 다른 점들은 무작위로 움직이게 한 결과 실험 참여자는 동일 방향의 점을 나타내는 활자만을 배우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⁹⁾



와타나베 연구팀의 실험을 보완한 페시글리오네는 무의식적 습득의 조건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하는데 그에 따르면 숨겨진 시각적 자극은 그

-
- 8) Watanabe, T., Nanez, J. E., & Sasaki, Y. (2001). Perceptual learning without perception. *Nature*, 413(6858), <http://www.college-de-france.fr/site/stanislas-dehaene/#m=course|q=/site/stanislas-dehaene/course-2008-2009.htmlp=http://www.college-de-france.fr/site/stanislas-dehaene/course-2009-01-06-09h30.html> 참고
- 9) Seitz, A. R., & Watanabe, T. (2003). Psychophysics: "Is subliminal learning really passive?" *Nature*, 422(6927), 36.

것이 의식적 강화 작용을 동반할 때 운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효력 있는 조건화를 일으킨다.¹⁰⁾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의적 습득은 무의식적 자극들이 인지 한계 바로 아래 위치할 때 가능하며, 집중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거나 동기 부여가 있는 실험 대상은 무의식적 자극을 연결하는 강화 신호를 얻게(보상받게) 된다. 무의식적 자극은 그것을 동반하는 의식적 습득(이 경우는 의식적 동기부여와 노력)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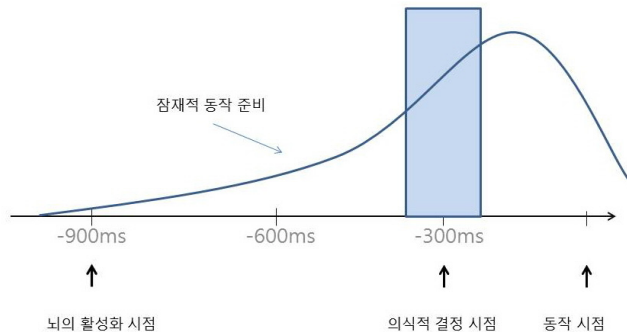
3. 무의식과 의사결정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행선지를 향하는 경험을 하곤 한다. 또는 서점을 둘러보야 하는 느낌에 이끌려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훑어보거나 구입할 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있다. 이런 경우 모두 무의식의 활동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데 무의식과 의사결정의 관계에 대해 뇌파 실험을 처음 시도한 사람은 리벳(B. Libet(1983년))이다.¹²⁾ 그는 실험 대상을 벽시계 앞에 앉게 한 뒤, 원하는 순간에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데 유일한 요구사항은 초침이 어떤 숫자를 지날 때 버튼을 눌렀는지 기억하라는 것이다. 실험 대상에게는 뇌파검사기가 연결되어 있어 1) 결정하는 순간, 2) 뇌가 활성화되는 순간, 3) 버튼을 누르는 순간을 측정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 리벳은 의식적 결정 순간보다 앞서(수백 ms) 뇌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10) Matthias Pessiglione (2007, 2008)

11) 무의식의 작용과 함축 작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의식적 작용은 말 그대로 무의식적 자극의 처리가 실제로 비의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함축적 작용은 의식적 자극의 무의식적 처리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무의식적 자극만을 다룬다.

12) <http://sciencetonnante.wordpress.com/2012/03/05/le-libre-arbitre-existe-t-il/>. 이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이 ISBN 2269-5915를 부여한 <놀라운 과학>이라는 블로그이다.



또한 2008년에 순(C. S. Soon)은 리벳의 실험을 응용하는데 그는 실험 대상에게 두 개의 버튼을 양손에 쥐고 하고 원하는 순간에 좌우 버튼 중 하나를 누르라고 주문한다. 리벳의 실험과는 달리 이번에는 fMRI를 이용했으며 그럼으로써 뇌 전체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결과는 더욱 놀라웠는데 실험 대상의 뇌는 버튼을 누르기 7~10초 전에 준비 단계에 돌입했으며 어떤 버튼을 누를 것인지도 뇌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정확도는 60%에 달했다.¹³⁾ 이런 연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가 의식적 의사결정 이전에 결정된다면 이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말하는 발신자의 개념에 <발신의 과정>을 도입하게 만들 수도 있다.

4. 무의식과 메타인지

만약, 뇌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데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모른다면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인지과학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거나 모르는 현상을 메타인지, 즉 <인지에 대한 인지>를 통해 설명하

13) C. S. Soon et al., Unconscious determinants of free decisions in the human brain, Nature Neuroscience 11, p.543~545 (2008)
<http://www.nature.com/neuro/journal/v11/n5/abs/nn.2112.html>,
<http://sciencetonnante.wordpress.com/2012/03/05/le-libre-arbitre-existe-t-il/>.

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볼리비아에서 둘째로 뚱뚱한 사람을 물으면 대부분은 즉각 모른다고 답하지만 일부 학생은 순간 고민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몰라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더 일반적으로는 어떤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해답을 알고 있었다는 경험도 예로 들 수 있다. 데아엔은 신뢰와 실수에 대한 메타인지적 판단에는 세 가지의 인지 작용이 동원된다고 가정하는데 그에 따르면 그 중 둘이 무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요컨대 세 가지 작용 중 하나는 (무의식을 포함한) 모든 지각적 판단을 동반하는 <불확실성의 기본 평가>이며, 둘째는 자동화된 실수 감지 체계이고 셋째는 의식적이고 독립적이며 때로는 가상의 메타인지 체계라는 것이다.¹⁴⁾ 결국 세 번째 인지 작용만이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메타인지의 메커니즘을 도식화하여 n 의 모든 정신작용은 $n+1$ 차원의 정신적 재현을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¹⁵⁾ 이 도식에 따르면 인지적 감시(cognitive monitoring)은 n 에서 $n+1$ 을 향하는 반면에 메타인지적 컨트롤은 반대(의식 이전)의 방향을 갖는다. 즉 n 차원의 정보 처리는 상위 차원에서 그 전략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fMRI를 통해 관찰해도 <알고 있는 느낌(feeling of knowing)>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과 비례적으로 모두 전전두엽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되며(Kikyo, Ohki & Miyashita, 2002), 좌우 뇌를 연결하는 전두엽의 뇌량 백질의 밀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이 때문에 인지과학자들은 지능 자체가 메타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같은 실험과 연구 결과들은 뇌의 무의식적 활동들이 우리의 일상

14) http://www.college-de-france.fr/media/stanislav-dehaene/UPL2459176694857019989_dehaene.pdf

15) Introspection et métacognition : Les mécanismes de la connaissance de soi. Collège de France, 2012, http://www.college-de-france.fr/media/stanislav-dehaene/UPL2459176694857019989_dehaene.pdf, p.316.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들을 점점 규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에 무언가를 의도 및 의식적으로 배웠지만 그런 사실을 잊은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들은 자극들이며 전통적 의미의 기호가 아니다.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안정된 집합을 구성하지도 않으며 당연히 특정 코드에 기초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현재로서는 고립된 자극에 머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좀 더 연결된 것들이 관찰되기 시작했을 따름이다. 데아엔은 몇 가지 연구를 종합하여 무의식적으로 인지되는 자극들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정보의 코드화	주요 특징들
의식적 처리	정보는 뉴런의 제한된 집합의 방전으로 명백하게 코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특히 전두엽을 포함하는 총체적 활동 공간과 지속적인 방향을 일으킨다.
무의식적 처리 : 연결성	정보는 시냅스 질량의 모형 형태로 코드화되었다(예: 문법 능력)
무의식적 처리 : 분포된 활동의 구성배치	정보는 특성화된 뉴런 군에 집약되기보다는 수많은 뉴런들의 방전의 비율에 의해 코드화된다.
무의식적 처리 : 기능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체계	정보는 뉴런들의 방전의 비율에 의해 코드화되지만 그 뉴런들은 대뇌피질과 특히 전두엽과의 상호 연결되지 않았다.
무의식적 처리 : 잠재의식의 처리 <i>Traitement subliminal</i>	정보는 뉴런 방전의 자극에 머문다.
무의식적 처리 : 전의식의 처리 <i>Traitement préconscient</i>	정보는 뉴런의 지역적인 연결망의 방전 비율로 코드화되지만 그것의 활성화는 다른 임무로 가려진다.

IV. 무의식적 인지와 잠재-시니피에

메타인지가 정보를 관리하고, 자신도 모르는 동기부여가 소통에서의 효율을 결정하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이유도 모르게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한 개인의 취향(문화 코드)을 말해 주는 동시에 일상에서의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된다면 모든 것은 마땅히 커뮤니케이션(내지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기본 요소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무의식적 인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갈 길이 멀지만 현재로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위의 도표가 보여주듯이, 무의식적 정보들이 기호 이전의 여러 지위를 갖는다는 사실에 있어 보인다. 요컨대 <뉴런 방전의 자극에 머무는> 정보(잠재의식적 처리)가 있는가 하면 <뉴런의 지역적인 연결망의 방전 비율로 코드화되지만 그것의 활성화는 다른 임무로 가려지는> 것들도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정보가 의식적 활동 내지는 목적 지향성이 있을 때 활성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자극들의 상호연결(또는 뉴런의 점화)을 범주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떤 정보는 감정적 내포나 감정적 느낌으로서 코드화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들은 더 포괄적으로 이데올로기적 토대 내지는 방향으로서 작용하거나 또 다른 것들은 메타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무의식적 자극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조심스럽게나마 하나의 가설을 가능케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میم(meme)>의 생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바 있는 <통합적 내포>라는 개념을 다시 언급해 보기로 한다. 인지과학을 참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통합적 내포를 내포적 의미가 상호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추상적 내포이자 잠재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정보 통합체(synthesis)>로 정의해 보았다.¹⁶⁾ 이를 토대로 우리는 재즈의 매력을 말로 설명할 수도

16) 김광현, 「문화 유전자와 문화 코드」, 기호학연구, 제26호

있지만, 유명 클럽에서 그 음악을 라이브로 접하는 것과 다른 이유는 그런 클럽의 분위기, 다시 말해 음향, 고객층, 실내디자인, 소품 등 수많은 자극과 기호들이 동시에 수신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화 이데올로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감각 통해 전달되는 밈-기호의 내포적 통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¹⁷⁾ 인지과학에서는 잠재적 자극 하나 하나는 뉴런의 매우 짧고 약한 점화만 일으키고 사라질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다른 인지 활동과 연결되면 적어도 기존의 인지 단위나 과정을 강화한다고 말한다. 즉 무의식적 자극들의 지위가 다양할 지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일종의 통합체를 만들어내어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인지와 결정, 심지어는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로나마 우리는 그것을 잠재-시니피에로 불러보기로 한다. 이런 잠재-시니피에는 사회성(따라서 코드)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원초적 상태의 내포>일 수도 있으며 개인의 인지 체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시니피앙이 결여된 상태이자 코드화되지 않은 상태이다(예술가들에게 이것은 잠재적 영감(*inspiration*)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감각기관을 통해 수신되어 차후에는 외부세계와 갖는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면 적어도 그 존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¹⁸⁾

그러면 이 문제를 기호학에서 자주 인용하는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도표와 관련지어 접근해 보자. 이미 오래 전부터 기호학의 기본 개념으로 뿌리를 내린 도식을 통해 야콥슨은 여섯 가지의 <언어의 기능>을 구분하는데 잘 알려졌듯이, 그것들은 1) 지시적 기능; 2) 감정적 기능; 3) 명령의 기능; 4) 연결(또는 접촉)의 기능; 5) 메타언어의 기능; 6) 미적 기능이다. 우선 <미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메시지가 모호하게 구성되고 자체를 주목하게 할 때, 다시 말해 무엇보다 자체의 형식에 수신자

17) 정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다. 어떤 독자가 『자본론』을 읽고 칼 마르크스의 사상에 도취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독자가 당시(또는 그 시대와 유사한) 노동자의 삶을 체험했다면 그 책을 통해 전달되는 밈-이데올로기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18) 이론 접근은 파롤의 언어학을 피력하는 언어학의 한 부류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를 집중시킬 때 미적 기능을 갖는다. 에코는 <코드라는 예상 체계를 기준으로 하면 미적 기능을 가지는 메시지는 우선 모호하게 구성된다. 극도로 모호한 메시지는 정보량이 그 만큼 풍부한 메시지이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는 수많은 해석적 선택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소음>, 또는 말 그대로 무질서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¹⁹⁾ 여기서 <소음>을 무의식적 인지와 관련지어 논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유능한 감독이 세심한 미장센을 선보일 때 과연 관객들은 화면을 채우는 모든 것을 인지하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대체로 관객들은 줄거리에 이끌려 영화를 감상하는데 일부 “훈련된” 이들만이 그런 미장센을 음미할 것이며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는 단정 짓기 어렵다(영화 전체를 쇼트로 분할해서 봐야 가능할 따름이다). 하지만 영화의 완성도가 높ی 평가되는 데에는 이렇게 “안 보이지만 인지되는” 미장센의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일종의 음악적 화음처럼 작용하는데 영화의 경우는 <의도된 소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무의식적 정보인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바이올린이 명기로 꼽히는 이유는 그 악기가 (여러 장점 이외에도) 2차 및 3,4차 하모닉스를 적절히 내기 때문이다(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도된 소음이 아닐 수도 있으며 양질의 목재가 건조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다). 어쨌든 일반인들은 그것을 인지 못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느낀다(싸구려 합판으로 만든 현악기는 기본음만을 들려준다). 결국 어떤 대상이 <좋다>고 의식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에는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들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게다가 <좋다>는 느낌은 가장 원초적이고 포괄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복합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야콥슨이 말하는 상황(contexte)도 무의식적 인지의 개념을 도입하면 다르게 조명될 수 있다. 상황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

19) 하지만 에코는 이런 견해를 토대로 <코드를 벗어나는 미학>, <예상을 뒤엎는 메시지>를 분석하지만 소음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보인다.

는 물리적 배경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수신자가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자극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²⁰⁾ 그런 자극들의 총체를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결국 <수신자가 코드를 알지만 의식 못하는 기호>에서, <코드를 모르는 자극-기호>, 또는 <코드화되지 않은 자극>으로서 잠재-시니피에>로 분포된다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첫 대면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심리학자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호감 여부가 짧게는 3~4초 만에 결정된다고 한다. 이런 짧은 시간에 무엇이 의식 차원에서 분석될까 하는 질문에 답한다면 기껏해야 말투, 외모, 태도 정도가 될 것이며 기호학은 이런 문제를 대체언어학(para-linguistics) 및 시각기호학(표정학, 근접학, 의상코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호감의 유형론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3~4초 만에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절대적으로 적은 대신 이런 경우에도 무의식적으로 인지되는 자극들이 한몫을 할 것이며 어떤 코드에 속하지도 않는 그런 자극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호감(또는 쾌감) 유발 자극일 수도 있으며 (뉴로 마케팅이 시도하듯이) 그것들은 차후에 fMRI를 통해 규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호감의 자극들이 있다면 반감의 자극들도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무의식적 인지와 기호학: 몇 가지 인식론의 문제

무의식적 인지의 문제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시하기에는 충분한 결과를 선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뇌 활동의 직접적인 관찰

20) 야콥슨의 6가지 언어기능 중에서 지시적 기능이 가장 논란의 대상이므로 여기서는 contexte를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의미로 이해하기로 한다. 지시적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는 <http://www.signosemio.com/jakobson/fonctions-du-langage.as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은 우리가 비록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인된 기호뿐만 아니라 잠재적 기호까지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호학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요구하겠지만 동시에 몇 가지 인식론적 문제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전통 기호학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규범과 체계”를 기반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은 기호학이 탄생하고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계를 결정하기도 한다. 소쉬르는 언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호들의 생태를 연구하는 학문을 구상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호론>의 필연성을 피력했으며 그에 따르면 기호론은 <기호들이 어떻게 구성되며 어떠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지를 밝히는> 학문이다.²¹⁾ 이 같은 인식론은 기호들의 구성과 법칙을 앞세움으로써 사회집단이 사용하는 의미 단위들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방법론의 핵심에는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의 자의적인 결합체인 기호와 코드의 규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한편, 퍼스(C.S. Pierce)는 기본적으로 기호현상을 <세 개의 주체, 예컨대 기호와 대상과 기호의 의미 사이의 협동을 유래하는 감화 또는 행위이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삼원적 관계는 한 쌍의 주체로 풀이될 수 없는 상호작용이다>고 정의하면서 기호의 존재 조건은 해석소에 있다고 말한다(적어도 이런 정의는 널리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무의식적 인지는 사회적 코드나 해석소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오래전에 에코는 <결국 소쉬르와 퍼스의 정의는 말초신경 조직에서 대뇌 피질까지 전달되는 신호들을 연구하는 분야인(애쉬비(Ashby) 1960, 구고-페로(Goudot-Perrot) 1967) 감각적 현상들의 신경·생리학적인 연구들과 생체에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네틱스(애쉬비 1960, 샤논(Shannon) & 웨버(Weaver) 1949, 류에르(Ruyer) 1958), 그리고 코드와 메시지의 개념이 빈

21) 에코, 『부재의 구조』, 열린책들, 2007, 36쪽.

번하게 사용되는 유전학 연구들을 기호학의 영역에서 제외시킨다>고 경고하기도 했으며, 같은 맥락에서 클린켄베르크(J-M. Klinkenberg)는 <자연세계의 기호학을 세우려는 작업에 착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언어 속에 잠겨 버리며 언어의 구성적 및 범주화 성질은 너무 명백한 나머지 사고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대부분의 공론은 언어 자체에 대한 설계도를 제시하는 데 불과했다. 결국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의미 체계 내에서만 의미 이론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고 역설한다.²²⁾ 이렇게 인지과학의 출현과 함께 어쩌면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서 정보가 요구되고 형성되는 과정까지도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기호학은 철학 및 언어학과 마찬가지로 정신/몸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그 이론적 틀과 교리를 세웠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클린켄베르크를 다시 인용하자면, <오늘날 신체과학은 인간이 외부 세계에서 받는 자극들을 마치 반사 회로에 따라 처리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특히 그런 상황에 자신의 행태를 예견할 수 있는 매우 정밀한 기계>이다.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정밀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다. 한 예로 뉴로소화기병학(Neurogastroenterology)이라는 다소 생소한 연구 분야에서는 인간의 소화기관에 존재하는 2억 개 이상의 뉴런을 확인하고 그것은 미주신경을 통해 뇌와 소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2억 개의 뉴런이란 웬만한 애완동물의 뇌가 갖는 뉴런 수에 버금간다). 뿐만 아니라 소장과 대장에서 세로토닌의 95%가 생성되며 그것은 혈액을 매개로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도 주목하고 있다.²³⁾ 좀 과장

22) Jean-Marie Klinkenberg, Pour une sémiotique cognitive, Linx, 44, p.133~148, 2001. <http://linx.revues.org/1056>.

23) Documentaire Arte, 「Le Ventre, Notre Deuxième Cerveau」 <http://www.youtube.com/watch?v=flyDFM3VNlk>, Xenius Arte, 「L'intestin: cerveau des émotions」, 2014년 2월 24일. <http://www.youtube.com/watch?v=f927WwKgDaE>.

되게 말하자면 우리의 기분이 소장과 대장에서 결정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소화기관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대뇌 이전에 존재했으므로 어떤 이들은 아예 제1의 뇌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발견은 적어도 육체/정신의 이분법이 장애요소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기분의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은 기호학의 규범주의가 기호발생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가로 막았다는 사실도 일깨워주고 있다. 클린켄 베르그가 말하듯이 <규약성의 이론은 규약을 선행하는 단계들을 어두운 천으로 가려버린다. 이런 이론은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공감대가 자리 잡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자극들의 지위를 다시 언급하자면 그것이 다양하고 유동적이라면 하나의 무의식적 인지 요소는 고립되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다양하고 유동적인 자극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 점은 기호 발생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달리 말해, 1) 무의식적 자극들의 특정 상황에서 일종의 통합체를 만들어내고, 2)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우리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것을 잠재-시니피에라고 불러 보았다. 이런 잠재-시니피에는 시니피앙을 갖지 않지만 그럼에도 비슷한 느낌이 공유되면서 개념화되고, 어쩌면 처음에는 메타언어적 환언으로 표현되어 서서히 명명의 시도가 이어져 시니피앙을 부여받으면 그것은 정통적 의미의 기호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 기호의 탄생 과정 중 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물리적 토대를 갖지 않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를 갖지 않는 외부 세계의 자극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 기호학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물리적 의미와 비의미적 물리적 자극의 관계를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이는 결국 <언어라는 현존하는 의미체계로 어떻게 언어가 인지 못하는 세계를 기술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자 <기호발생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기호학과 인지과학의 융합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으며 기호발생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소개되고 있다. fMRI 영상이 소개될 무렵 올레(P. Ouellet)는 <의미 작용은 당연히 자연언어의 형식적 제약과 담화 실천을 지배하는 규범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는 우선 담화 실천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의식 작용에 기초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우리 사고의 모듈 중 하나에 불과한 발화 능력뿐만 아니라 기억과 상상력, 추론과 의도성,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지각, 즉 현실 속에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방법과 운동-감각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²⁴⁾ 그리고 좀 더 최근 연구에서 조창연은 <두뇌에서 기호(의미) 생성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는 이러한 비표상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것은 기호의미 생성을 기호구조적관점에서가 아니라 기호 발생적 관점에서 접근함을 필요로 한다. 기호의미는 기호의 성장과 더불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각은 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지각작용의 결과는 두뇌의 신경망 기능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지적한다.²⁵⁾

인지과학의 발전은 분명 인지기호학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클린켄베르크에 따르면 인지기호학은 <기호와 인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의미는 자극과 여러 모델의 상호작용에서 유래된다는 가설>에 기초한다.²⁶⁾ 이는 이중의 운동, 즉 현실세계에서 기호학적 주체, 그리고 기호학적 주체에서 현실세계를 오가는 운동에 대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운동에서 자극들은 모델에 기초해서 인지적 구상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모델은 경험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변화한다. 의미는 구조가 자리 잡는 경험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감각지각력(sensorialité)과 감각(sens)은 서로 밀접한 나머지 가장 기초적인

24) P. Ouellet, “La Sémiotique cognitive”, *Sémiotique*, No 6-7, 1994.

25) 조창연, 「비표상적 기호의미 생성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기호학연구』 제18권, 한국기호학회, 2005, 269쪽.

26)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상징 모델과 모듈 모델 모두를 포함한다.

기호체계는 현실을 지각하는 우리의 활동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결국 <의미는 감각에서 생겨난다(le sens procède DES sens)>는 말이다.²⁷⁾

VI. 결론

생물학의 선조는 박물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원미경의 발견은 세포 생물학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분자 생물학까지 발전함으로써 생화학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관찰의 도구가 이런 진화의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힘들다. 그러면 기호학은 이러한 진화 흐름에 어디쯤 위치하는가? 커뮤니케이션은 현존하는 코드에 근거하여 공인된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국한되는 사회적 행위에 그치는가?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것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은 무의식의 정보들을 활성화하는 또 다른 역할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수신자 사이의 정보 교환을 넘어서 비의식과 의식의 인지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인지과학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 관계는 기존의 기호학을 인지기호학으로 확장시켜 기호의 탄생까지도 연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물리적 구조체이며 생물학적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육체는 또한 현상학적 존재를 갖는 <체험>의 구조이기도 하다. 지각적 활동 덕분에 육체는 인지적 기구, 따라서 기호학적 기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지기호학은 규범기호학을 뛰어넘어, 자극에서 개념이 형성되는 메커니즘과 더 나아가서는 코드의 발생을 연구하는 영역으로의 초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7) Jean-Marie Klinkenberg, “Pour une sémiotique cognitive”, Linx, 44, 2001,

참고문헌

- 김광현, 『이데올로기, 문화 해부학 또는 하이퍼코드의 문제제기』, 열린책들, 2013.
- _____, 「문화 유전자와 문화 코드」, 『기호학연구』 제26권, 한국기호학회, 2009.
- _____, 「인지와 기호현상: 몇 가지 문제제기」, 『기호학연구』 제39권, 한국기호학회, 2014.
- 다윈, 『종의 기원』, 홍신문화사, 1999.
-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04.
- 르블, 『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994.
- 에코, 『부재의 구조』(원제: *La structure absente*), 열린책들, 2007.
- 이정모,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and applications』,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 _____, 「인지과학개론」, <http://cogpsy.skku.ac.kr/study/study.html>. 2008.
- 조창연, 「비표상적 기호의미 생성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기호학연구』 제18권, 한국기호학회, 2005
- 칼스네스, 『인식과 이데올로기』, 박진환 외 역, 문우사, 1991.
- Berkes, Jem E., “Does “subliminal perception” (perception without awareness) occur, and how can it be measured?” 2004, University of Manitoba.
http://www.berkes.ca/archive/berkes_subliminal_perception.pdf.
- Crump, M. J.C. & Logan, G.D. (2010). Hierarchical control and skilled typing: Evidence for word level control over the execution of individual keystrok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 Cognition*, 36, 1369-1380.
<https://dl.dropboxusercontent.com/u/14462007/articles/CrumpLoganLMC2010.pdf>
- Dehaene, S., “L’inconscient cognitif et la profondeur des opérations subliminales”, Collège de France, 2009년 강의,
<http://www.college-de-france.fr/media/stanislas-dehaene/>
- _____, S., "L'inconscient cognitif: une introduction historique et critique",
<http://www.college-de-france.fr/site/stanislas-dehaene/>.
- _____, S., "Introspection et métacognition : Les mécanismes de La connaissance de soi", Collège de France, 2012,
<http://www.college-de-france.fr/media/stanislas-dehaene/UPL24591766948>

- 57019989_dehaene.pdf,
- _____, S., "Peut-on apprendre sans conscience ?", http://www.college-de-france.fr/media/stanislas-dehaene/UPL26650_dehaene_20090303.pdf.
- _____, S., "Introspection et métacognition : Les mécanismes de La connaissance de soi", Collège de France, 2012, http://www.college-de-france.fr/media/stanislas-dehaene/UPL2459176694857019989_dehaene.pdf.
- Dubuc, B., "Le cerveau à tous les niveaux", <http://lecerveau.mcgill.ca/>.
- Klinkenberg, J-M., "Pour une sémiotique cognitive", Linx, 2001.
<http://linx.revues.org/1056>.
- Henson, R. N. & Alii, "Electrophysiological correlates of masked face priming". *Neuroimage*, 40 (2), 884-895. 2008. Magnan de Bornier J., "Mêmes et évolution culturelle", texte provisoire, Séminaire économie et biologie, CREUSET et GREQAM, Université Paul Cézanne Aix-Marseille. 07, 2005.
참고. <http://junon.univ-cezanne.fr/bornier/publi.html>.
- Ouellet, P., "La Sémiotique cognitive", *Sémiotique*, No 6-7, 1994.
- Seitz, A. R., & Watanabe, T. . "Psychophysics: Is subliminal learning really passive?" *Nature*, 422(6927), 36, 2003. <http://sciencetonnante.wordpress.com/2012/03/05/le-libre-arbitre-existe-t-il/>.
- Suzanne, E., "La psychanalyse face aux neurosciences (1)" <http://www.implications-philosophiques.org/ethique-et-politique/implications-axiologiques/psychanalyse-et-neuroscience/la-psychanalyse-face-aux-neurosciences-1/>.
- Watanabe, T. & alii, "Perceptual learning without perception", *Nature*, 413(6858), <http://www.college-de-france.fr/site/stanislas-dehaene/#|m=course|q=/site/stanislas-dehaene/course-2008-2009.htmlp=http://www.college-de-france.fr/site/stanislas-dehaene/course-2009-01-06-09h30.html>, 2001.
- Whalen, P. J., & Alii, "A. Masked presentations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modulate amygdala activity without explicit knowledge". *Journal of Neuroscience*, 18, 411-418., 1998.. <http://www.college-de-france.fr/site/stanislas-dehaene/#|m=course|q=/site/stanislas-dehaene/course-2008-2009.htmlp=http://www.college-de-france.fr/site/stanislas-dehaene/course-2009-01-06-09h30.html>.
- Zahlten, C-Ph., "Le Cerveau et la perception de la réalité", Documentaire Arte, 2011, 43mn. 원제작 ZDF.

Inconscient cognitif et communication - réflexion pour une sémiotique cognitive

Kim, Kouang-Hyeun

Cette étude a pour but de présenter quelques expériences sur l'inconscient cognitif afin de cerner son statut dans les communications humaines et la théorie sémiotique à venir. Et il est apparu clairement que les stimuli inconscients que nous recevons tous les jours influencent d'une façon comme une autre nos actes plus ou moins conscients sans être codés au sens traditionnel du terme. Autrement dit, les stimuli sont susceptibles de former des signifiés en puissance qui s'activeront généralement sous des pulsions motivatrices d'un effort conscient ou d'un besoin plus ou moins immédiat, ce qui nous a paru comme une manière effective d'influencer les actes de communication de tous les jours. Sur ce, nous nous sommes posé la question de savoir quel serait le statut de l'inconscient cognitif en sémiotique et pour cela nous avons passé en revue critique de la théorie de communication de R. Jakobson et nous avons été amené à dire que la sémiotique traditionnelle s'était peut-être trop longtemps renfermée dans le dualisme corps/esprit ainsi que dans un conventionnalisme qui ne prend en considération que les aspects socialement codés des faits de communication.

Key Words: sciences cognitives, l'inconscient cognitif, communication, stimuli cognitif, sémiotique

투고일 : 2015. 08. 15. / 심사일 : 2015. 08. 30. / 심사완료일 : 2015. 09. 05.